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 동 지 침†

- 1.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 에발 산과 그리심 산II

(여호수아 8:30~35)

이종윤 원로목사

### II. 에발 산에 단을 쌓으라

#### 1. 이 제단은 율법을 들었으나 지키지 않은 이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동시에 희생 제물에 대한 규례도 주셨다.

모세를 율법 전수자로 세우시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천둥우뢰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시내 산에서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지는 인간이 피할 길을 보여주신 것이다.

죄는 심판을 가져온다. 죄의 심판은 죽음이다. 그러나 희생양이 죄인의 자리에서 대신 죽었다. 이것은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형벌을 피하게 된다.

#### 2.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단을 세웠을 때 에발 산에 단을 쌓았다

제단은 왜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이나 아니면 두 산 사이가 아니고 저주의 산인 에발 산에 세웠나?

우연일까? 그 대답은 분명하다. 제단은 죄인을 위한 것이다. 자기 죄를 아는 이들이 제단 앞에 희생양을 끌고 온다. 제단 앞에 오는 이는 죄인으로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저주의 산 에발 산 위에 제단을 쌓았다.

그로부터 천년 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 위에 그들의 제단을 쌓았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너희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다(요4장). 예수님은 그리심 산이나 시온 산에서부터가 아닌 자신에게로, 특히 자기의 십자가 희생으로 응답하셨다.

그때나 오늘이나 인간의 특성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의로서는 하나님께 올 수 없었다. 그들은 죄 씻음을 받아야 했고 대속적 희생 제물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의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으며 지금 있는 남편은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했으니 그 여자의 죄도 씻김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기 위해 저주가 있는 에발 산 위에 제단을 세웠다. 오늘날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셨으니 죄인이라 고백하는 이가 희생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용서함 받을 수가 있다.

#### 3. 에발 산에 세운 제단은 돌단으로 하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것으로 하라고 했다

### (신27:5 - 6)

이것은 인위적인 인간의 기술이나 솜씨를 가미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가인의 자리에 서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을 금하신 것이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모든 인본주의(인간적인 것)를 완전히 배격하라는 것이다.

구원 사역엔 인간의 어떤 것도 가미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은 이를 수 없다. 자기 의로는 아무도 하나님께 올 수 없다. 에발 산, 즉 저주받을 죄인의 자리에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제단 앞에 즉 하나님께 나아와 한다.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자질로도 할 수가 없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진리를 '믿음으로만(sola fide), 은혜로만(sola gratia)' 이라고 했다.

믿음으로만 -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거기에는 인간의 아무런 공로가 개입되지 않는다.

은혜로만 - 이것은 완전한 은혜였다.

###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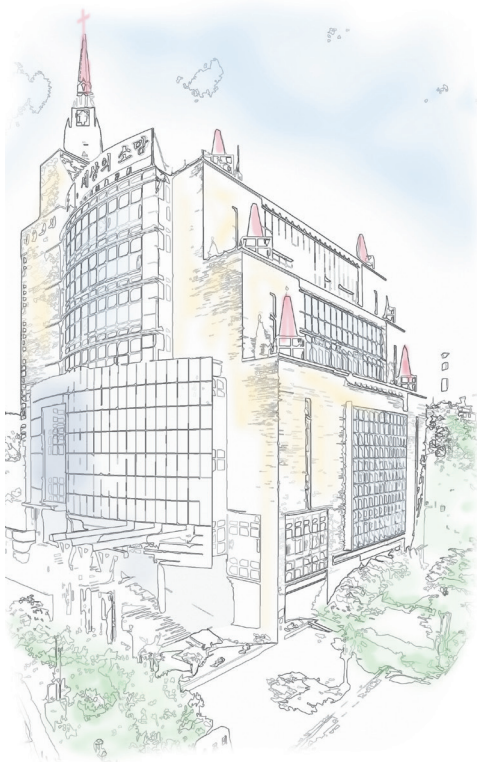
#### 1. 제단은 저주의 산 위에 있었다

구원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므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종교적 · 도덕적 행위 즉 인본주의적(인간적)인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단에 제물을 들고 가는 길 뿐이다.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스도 편에서 살고 있는 성도는 그리심 산을 통해 하나님께 오려 했던 사마리아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된다.

인간은 에발 산을 통해 하나님께 올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기 때문이다.

#### 2. 우리가 한 번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

우리는 다시는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나는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면 알곡이 아닌 가라지요 버림받고 심판 받게 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자.



# 2018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시작되다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2018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일정이 시작되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는 지난 주 토요일(7월7일) 사랑부를 시작으로 계속된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영의

을 얻는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교회학교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부서	일정	장소	주제	교역자
영아부	7월 21일 (토)	서울교회	"교회야 마을로 가자" (마태복음 9:35)	김은숙 전도사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7월 26일 (목) - 28일(토)	아가페타운	위대한 건축가 "느헤미야 프로젝트" (빌립보서 2:13)	박미라 전도사
초등부				
중등부	7월 26일 (목) - 28일(토)	아가페타운	"You are My People" (출 19:5-6)	최승원 전도사
고등부				
청년1부	8월 13일(월) -15일(수)	아가페타운	"치유하시는 하나님" (열왕기하 20:5)	심우진 목사
청년2부				
사랑부	7월 7일(토)	서울교회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11)	심우진 목사
에바다부	8월 11일(토)	서울교회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9:35)	서명철 목사
영어예배부	7월 21일 (토)	인제 한터울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9:35)	김의창 목사
장로 수련회	8월 14일 (화)	아가페타운		



###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양숙란 정춘혜 이봉선 조상환/전광환 고완순 최인애 김종자 이승래/김정희 이선희 김영선/권택숙 최근자 황정욱/주경자 정철웅/오선혜 임대중/남재은 최현인 리브가여전도회 무명 3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 찬양예배 전 교회 회복 기도회

찬양예배 전 오후 4시 30분부터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교회가 불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찬양과 기도 뿐이다. 찬양과 기도는 사탄의 결박을 푸는 가장 큰 무기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 지난 주 우리 교회는...

①② 찬양예배 시  
2018 농어촌전도대  
파송식

③④ 2018 여름수련회 스타트!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하나님의 전신갑주!

# 하나님께서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P교회 목사님께서 서울교회 사대를 바라보며 보내주신 위로의 편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 시편 126장 5절 - 6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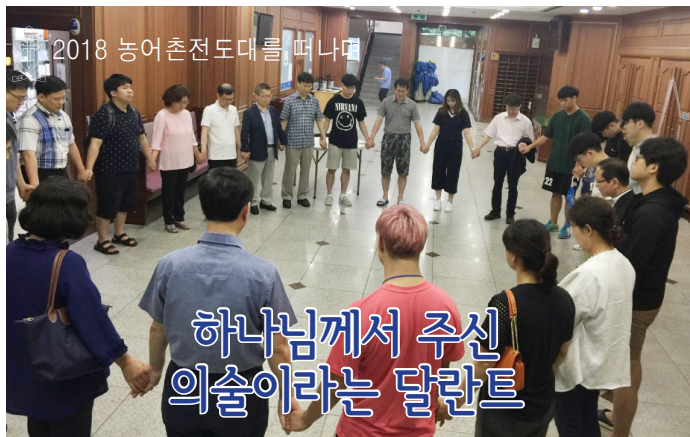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들을 병에 담으시고, 그 눈물의 깊이를 측량하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찢어지는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들과, 어려움들과, 고난 가운데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다는 말은, 지금도 내 옆에서 함께 계시며, 나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함께 통과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도,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야만 드러나게 됩니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눈물이 마르지 않지만, 하나님을 속단하지 않기 바랍니다.

농부가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아무리 눈물로 씨를 뿌려도, 당장 씨가 터지고 자라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논에는, 밭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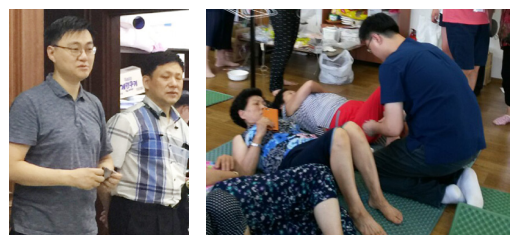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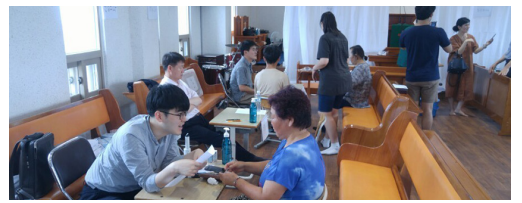
눈물을 흘리며, 애타는 마음으로 눈을 바라보고, 밭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의 시간이 지나 가을이 되면, 논에는 벼가 가득하고, 밭에는 과실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 때가 되면, 농부는, 자신의 눈물을 다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이 터지는 시기입니다. 아직은 씨앗이 자라는 시기입니다. 인내할 수 있기 바랍니다. 버틸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을 단 한 방울도 허비하지 않으시고 모두 계수하시며, 훗날 반드시 그 눈물을 기쁨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람!



2018 농어촌전도대를 떠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의술이라는 달란트



## 정철웅 집사 (2018 농어촌전도대 의료선교팀)

2015년 여름, 처음 서울교회가 대진중앙교회를 방문했을 때 성도수가 20여명이었습니다. 유입인구가 거의 없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농어촌의 현실상 성도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동해 최북단 항구인 대진항은 더욱 그럴 것이다.

“저희 성도수가 이제 60명이 넘어요. 대진사람들이 이제 대진중앙교회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올해도 서울교회 의사선생님들 오냐고, 언제 오냐고 물어요.”

2주전 대진에 답사차 방문했을 때 김춘기 목사

님(대진중앙교회시무)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답사때마다 현대면사무소를 방문하다 보니 복지담당직원도 우리를 알아보면서 올해도 또 오시냐고 반갑게 물어봐준다. 보건지소를 거쳐 교회로 오는 길에 만난 몇몇 어르신들께 낮이 익어 진료받으러 오시라 인사를 드리면 반갑게 받아주신다.

올해로 4년째 방문하는 대진항, 담임목사님의 간증만큼이나 우리 의료선교부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일년에 만나질 하는 진료가 의료적으로 주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의술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소외되고 아픈 이들을 섬기고 돌아온 후 들려오는 ‘아무게 할머니

가 어제 교회에 나오셨어요. 술주정뱅이였던 아무게 할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세요’라는 영혼구원의 소식들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도 13명의 의사와 4명의 약사를 포함하여 간호사, 의대생, 청년 등 27명의 의료팀이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대진땅으로 나아갑니다. 보잘 것 없는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 5천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만나질의 짧은 섬김이지만 성령하나님 함께 하시어 이를 통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2018 여름수련회에 초대합니다

### 소준 (고등부 회장)

요즘 장마로 인해 많은 미세먼지들이 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산뜻하고 풀 내음 가득한 여름이 다가온 것과 같이 싱그럽고 활기찬 중·고등부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26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2박3일 동안 청정지역 아가페타운에서 열립니다. 이번 수련회는 출애굽기를 통해 'You are My People'의 주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

## You are My People!!

씀을 나눈 후 그 말씀을 통해 '성경 골든벨'과 '성극'을 하는데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연 속에서 시원한 물놀이와 바비큐 파티로, 지친 우리의 체력도 한껏 키우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비전을 세워야하는 시기입니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잠시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는 답답한 쳇바퀴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 가득한 음성을 듣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를 발견하는 은혜를 모두가 함께 누

리기 원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의 욕심으로 우리의 꿈은 퇴색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저희 수련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자녀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면해주시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북분열

## 김동진 집사 (3교구)

본 글은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등 성경 역사서와 이사야를 비롯한 대선지서는 물론 소선지서 전체의 근간이 되고 배경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남북분열의 그 원인과 과정에 관한 것이다.

본문부터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남북분열이란 솔로몬 왕이 죽은 직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북쪽은 열 두 지파 중 에브라임 지파가 주축이 된 열지파로 구성되어 이스라엘이라 하였고 남쪽은 남은 두 지파인 유대와 베냐민으로 국가를 이룬 유다 왕국이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처음 세겜이었으며 그 후 디르사로 옮겼다가 마지막으로 사마리아로 천도하여 앗수르에 멸망하기까지 수도로 그 역할을 하였고 남유다의 수도는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성전과 함께 정치적은 물론 신앙적 중심을 이루었다.

● 이스라엘의 남북분열은 두 나라는 그간 축복받던 민족에서 순식간에 신앙적 타락은 물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몰락된 사회로 전락하였다.

### 2. 이스라엘 족장시대와 왕정시대의 개막 배경

#### 1) 왕정시대 이전

● 이스라엘의 역사 즉 그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형성한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밟은 때부터이다.

흔히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를 족장 시대라 하고 출애굽 후 가나안 정복과 더불어 열 두 지파가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여 각각 살던 시대를 사사시대라 하며 그 이후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부터를 왕정시대

라 하는데 족장시대는 일종의 씨족사회로 족장이 지도자이고 사사시대는 부족사회 형태였으며 반면 왕정시대는 열 두 지파로 구성된 단일국가 형태로 왕이 통치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남북분열은 왕정시대 때 두 나라로 나뉘어진 사건을 가리킨다.

●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족장시대에는 히브리 민족이라 하였고 왕정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부르며 신약시대에는 유대 백성 또는 유대인이라 하였던데 고대에는 어떤 민족이나 백성을 일컬을 때 그들이 속한 지방이나 지역 또는 주변 환경을 인용하여 불렀다.

#### 2) 왕정시대 탄생 배경

##### (1) 정치적 상황

● 이스라엘 민족이 BC 1,450 년경 출애굽 하여 40년 광야생활을 거쳐 드디어 젃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여호수아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정복사업을 전개하여 열 두 지파가 정복된 땅을 분배하여 가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열 두 지파 별로 제 각각 부족사회를 형성하며 유대 관계를 이룬 반면 가나안 땅 안에서도 미처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 중 대표적인 나라인 블레셋이나 주변 국가들은 이미 도시국가 형태이든 단일 국가 형태이든 강력한 왕정국가 체제를 갖추어 이스라엘 민족과는 통치력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앞선 모습이었다.

● 이러한 주변 국가들은 서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서남쪽으로는 블레셋이고 동쪽으로는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이 있었으며 좀더 동쪽으로는 미디안(아라비아)이 있어 이스라엘로서는 어느

하나 만만하지 않았다.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여호수아 13:3)“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 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 (사사기 3:2-3)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사무엘상 6:17) “

(다음 주 계속)

## 동 정

### ■ 금주의 식사: 돼지고기 수육

진 돈 장로 김경희 권사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고성 대진중앙교회에서 진행될 의료선교, 축호전도, 이미용선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주방봉사 사역을 통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고 명하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2. 2018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3. 우리나라에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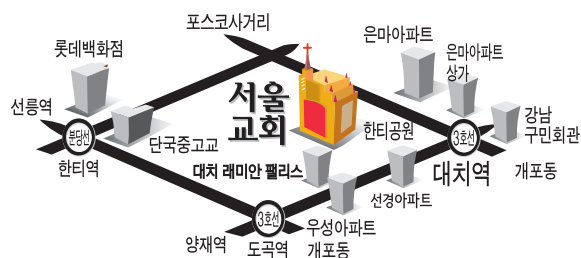
이름:

일 자	요 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7월15일	주 일	잠 6:20-8:36		출 30-34	
7월16일	월	잠 9-11		출 35-40	
7월17일	화	잠 12-14		레 1-7	
7월18일	수	잠 15-16		레 8-13	
7월19일	목	잠 17-19		레 14-17	
7월20일	금	잠 20-22		레 18-23	
7월21일	토	잠 23-24		레 24-27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